

117. 버스운전사에서 발생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4-5번, 3-4-5번 요추간협착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

성별 남 나이 62세 직종 여객 운수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나OO은 OO운수(주)에 1981년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을 시작하였으며 근무 15년째인 1998년경부터 요통으로 수술을 받았다. 당시 3개월 뒤 복직하여 2005년 6월까지 근무하였으나 요통으로 인해 퇴직하였다. 퇴직 이후 경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교대이며 일주일단위로 바뀐다. 오후 2시, 새벽 2시 교대가 이뤄진다. 휴무일은 주1일 휴무(금요일)로 3개월에 한번씩 휴무일이 바뀌며 사정에 따라 연차 및 월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3. 의학적 소견: 요통으로 치료하기 시작한 시점은 의무기록 조회에 의하면 1995년으로 확인되며 수술 이후 잘 지내던 중 2004년부터 요통이 다시 심해졌고, 2006년 8월경부터 손저림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나OO의 경추간판탈출은 근로자의 작업이 목을 과도하게 굴신시키는 작업이 아니며 전신진동으로 인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고 전신진동 측정 결과 역시 낮게 나타나 좌식 작업 및 전신진동에 대한 건강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추간판탈출은 경추와는 달리 좌식작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나OO의 상병발생 당시 연령이 50세(수술은 53세)로 요추간판탈출증이 호발하기 시작하는 연령대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요추부의 퇴행성 진행이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나OO은

- ① 경추 MRI 및 임상 소견, 수술 소견 상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4-5번, 3-4-5번 요추간협착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되었으나
- ② 상병 발생 당시 연령이 53세로 일반인구에 비해 조기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③ 시내버스의 전신진동 측정에서도 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진동값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 ④ 과거의 시내버스 운전에서 따른 전신진동 노출값 추정 역시 건강 위험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자 나OO의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